인싸의 시장 관찰 기록 — 2026-11-20 (금요일)

[오늘의 한 줄]

이틀간의 반등이 하루 만에 되밀렸습니다. 미국발 반도체 규제 우려와 외국인·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 코스피가 5.21% 급락해 4,869.96으로 밀렸습니다. 10개월 만의 최저입니다. 앤트로픽은 상장 첫날 +17%로 흥행했지만 시장 전반을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확인된 데이터]

■ 한국 시장 (11/20 정규장 마감, 오후 3시 30분)

- 코스피 4,869.96 (-267.93, -5.21%). 4.08% 내린 4,928.51로 개장해 종일 5,000선 아래에 머물렀고, 오후 한때 -5.96%(4,831.69)까지 밀렸습니다. 종가는 1/16(4,840.74) 이후 약 10개월 만에 최저, 주간 낙폭은 -7.9%. 시가총액은 3,991조4천억원으로 1/15 이후 처음으로 4천조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연합뉴스). 종가 기준 연중 고점(6/22 9,114.55) 대비 -46.6%, 9월 반등 고점(9/23 7,080.92) 대비 -31.2%. [계산]
- 코스닥 645.68 (-39.13, -5.71%). 장 마감 1시간 전에는 -6.23%까지 밀렸습니다.
- 코스피에 이어 코스닥에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양 시장 동시 발동은 11/6 이후 10거래일 만입니다 (연합뉴스).
- 공포지수(VKOSPI) 53.16 (-1.50%). 주가 폭락에도 2거래일 연속 내렸습니다.
- 반도체: 삼성전자 183,100원 (-7.01%), SK하이닉스 1,113,000원 (-5.92%), 삼성전기 774,000원 (-12.54%). 파이낸셜타임스는 삼성전자와 TSMC가 미국의 신규 수출통제에 따라 중국 고객사에 대한 일부 칩 출하를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1/19 현지, 보도 단계).
- 전력기기 3종: HD현대일렉트릭 386,500원 (-6.98%), 효성중공업 1,679,000원 (-6.51%), LS일렉트릭 109,700원 (-9.19%).
- 원화는 달러당 1,336.2원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보다 6.2원 약세, 연합뉴스).
- 업종은 전기/가스(+0.42%) 외 전부 하락. 기계/장비 -7.86%, 통신 -7.78%, 전기/전자 -6.57%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마감 기사·종합 기사, Hongzi(VKOSPI), 네이버 금융
https://www.yna.co.kr/view/AKR20261120126700008
https://www.yna.co.kr/view/AKR20261120137600008
https://fear.hongzi.us/data

■ 오늘 누가 사고팔았나 (한국거래소 오후 3시 35분 집계)

- 코스피: 외국인은 1조1,411억원을 순매도했습니다. 6거래일 연속입니다 (13일부터 누계 5조965억원, 연합 마감 기사). 기관도 9,513억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금융투자 -4,660억원, 투신 -3,088억원, 사모 -2,203억원, 연기금등은 +845억원 매수). 개인은 1조5,950억원,

기타법인은 4,883억원을 순매수했습니다.
- 코스닥: 외국인 -1,732억원, 기관 -1,079억원, 개인 +2,913억원.
- 코스피200 선물에서는 외국인이 +920억원 매수 우위, 기관 -180억원, 개인 -700억원 (연합 마감 기사).
- ※ 수급 수치는 집계 시각에 따라 기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수치는 오후 3시 35분 집계).
출처: 연합뉴스 투자자별 매매동향 표·마감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61120127400008
https://www.yna.co.kr/view/AKR20261120137600008

■ 미국 시장 (11/19 목요일 마감) — 앤트로픽 첫날과 2%대 급락

- 나스닥 23,879.20 (-2.25%), S&P500 7,175.83 (-2.02%), 다우 49,097.06 (-2.19%, 50,000선 붕괴·6월 이후 처음), 러셀2000 2,655.11 (-2.18%),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9,419.72 (-2.42%).
- S&P500은 6거래일 연속 내려 2024년 4월 이후 최장 연속 하락입니다. 지난달 사상 최고치 대비 -8.2%. 구성 종목의 90% 이상이 내렸습니다 (연합뉴스).
- 앤트로픽(ANT) 첫 거래: 시초가 111.50달러 (공모가 83달러 대비 +34.3%), 장중 최고 115.10달러 (+38.7%), 종가 97.17달러 (+17.07%). 거래량 약 8억5,264만 주, 종가 기준 시가총액 약 1조2,716억 달러 (나스닥 집계). 로이터는 완전희석 기준 기업가치를 약 1조7,700억 달러로 짚었습니다 (ZDNet). 총 조달액 1,073억 달러(공모 813억 달러 + 사모 260억 달러)로 지난 6월 스페이스X(862억 달러)를 넘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보도됐습니다 (연합뉴스).
- 증시는 앤트로픽 기대와 텍사스 환경당국의 데이터센터 인허가 심사 재개 소식에 상승 출발했으나, 앤트로픽 거래 시작 직후 하락 전환했습니다 (연합뉴스).
- 헌터브룩 캐피털(헤지펀드 연계 매체)이 AMD의 중국 수출통제 위반 의혹을 보도하고 공매도 포지션을 공개하면서 AMD는 7% 이상 급락했습니다. AMD 측은 불법행위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연합뉴스, 의혹·보도 단계).
- 엔비디아 145.98달러 (-3.31%), 팔란티어 153.68달러 (-1.91%), 아이온큐 22.71달러 (-3.28%), 아마존 257.37달러 (-3.87%), 오라클 -2.92%, GE버노바 -2.06%. 브로드컴 -2.09%, 마이크론 -2.10%, 메타 -3.27% (연합뉴스).
- 미 국채 11/19 확정 (재무부): 10년물 5.04% (-3bp), 2년물 4.76%, 3개월물 4.34%, 30년물 5.40%. 10년-2년 스프레드 +0.28%p. [계산]
- 한국 국고채 3년 3.642% (-7.3bp). 일본 30년물 3.955% (-3.5bp, 11/20, 관점망). [계산]
출처: 야후파이낸스, 미 재무부, 연합뉴스, ZDNet, 나스닥, 관점망
https://www.yna.co.kr/view/AKR20261120010751072
https://www.yna.co.kr/view/AKR20261120014100091
https://zdnet.co.kr/view/?no=20261120080221
나스닥 뉴스룸 (nasdaq.com, 앤트로픽 IPO 발표)
미 재무부 일일 국채 금리: home.treasury.gov (TextView, 2026년)

https://www.guandian.cn/m/show/630659

■ 채권·환율·원자재

- 유가: WTI 82.22달러 (한국시간 14시 기준, 진행 중). 브렌트 89.17달러 (14시 기준, 진행 중).
- 금 3,579.3달러 (14시 기준, 전일 같은 시각 대비 -2.9%, 진행 중). [계산]
- 나스닥100 선물 26,210.0 (한국시간 14시 기준, 진행 중).
- 미 에너지정보청 주간 소매 연료가: 11/17 새 주차치가 공개됐습니다 (측정일 11/16). 휘발유 전국 평균은 갤런당 3.805달러로 보도됐습니다 (2차 보도 인용). 경유 전국 평균은 EIA 원문 표를 확인하지 못해 오늘은 싣지 않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EIA, 야후파이낸스
https://www.eia.gov/petroleum/gasdiesel/

[복기]

어제의 판단을 실제 값과 대조합니다.
- 11/19 판단: "코스피 종가가 5,137.89 아래일 것" (T+1, 11/20 검증) → 실제 종가 4,869.96. 적중.
- 11/13 판단: "코스피 종가가 5,290.53 아래일 것" (T+5, 11/20 검증) → 실제 종가 4,869.96. 적중.
- 해석: 이틀 반등분을 하루 만에 모두 반납하며 두 판단이 모두 들어맞았습니다. 누계 41건 중 25건 적중.
- 한계: 같은 흐름 안의 연속 관측이라 독립 시행이 아니고, 단순 규칙의 참고 기록일 뿐 실력의 증거는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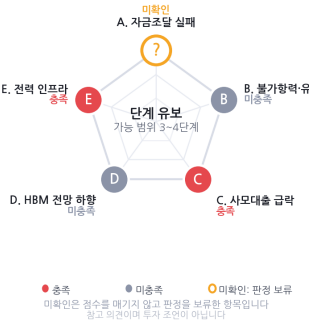
[판단]

- 이틀 반등의 확인 조건이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어제 꼽은 세 가지(앤트로픽 흥행, 반도체주 방향, 외국인 매도 지속) 가운데 첫째만 충족됐고 나머지 둘은 악화했습니다.
- 하락의 성격: 앤트로픽 흥행에도 AI 반도체주에서 자금이 빠졌고, FT의 삼성·TSMC 중국향 출하 중단 보도(보도 단계)와 헌터브룩의 AMD 의혹 보도·공매도 공개(의혹 단계, AMD는 부인)가 중국에 대한 규제 강화 우려를 키웠습니다. 외국인은 6거래일 연속 팔았고 기관도 9,513억원을 순매도했으며, 개인이 1조6천억원 가까이 받았습니다.
- 밀러타박의 맷 말레이는 "앤트로픽 IPO는 큰 성공이었지만 AI 수익성 우려, 막대한 지출, 높은 금리, 신용시장 스트레스, 지정학적 위험이라는 더 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 인용). 대형 이벤트 소화 뒤 고점 매도 성향이 강해졌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 앤트로픽 자체는 흥행했습니다. 다만 종가는 시초가보다 12.9%, 장중 최고가보다 15.6% 낮았고, 둘째 날 이후에도 주가를 유지할지가 남은 숙제입니다.
- 오늘의 새 판단 기록: "코스피 종가가 4,869.96 아래일 것". T+1(11/23, 월), T+5(11/27, 금)에 각각 검증합니다.
- 판단을 바꾸는 조건: (1) FT 보도의 확인 여부 (삼성·TSMC의 공식 입장 또는 미 상무부 발표). (2) 앤트로픽 주가의 유지 여부 (97.17달러 기준). (3) 외국인 매도 연속성과 연기금등 매수 지속 여부. (4) 미 10년물 금리 방향

(현재 5.04%).

[AI 위험 v1]

AI 투자 열기의 균열을 미리 잡기 위해 정해 둔 다섯 가지 조건입니다.



- A. AI 기업의 자금조달 실패·철회 (최근 30일 2건 이상): 미확인 (판정 보류, 유지). 네비우스 채권 철회는 결정일이 특정되지 않아 최근 30일 안의 사건으로 셀 수 없습니다. 앤트로픽 상장 흥행(총 1,073억 달러 조달)과 하나에어로 신규 상장(+6.14%)은 성공적 자금조달이라 건수와 무관합니다. 확인된 실패·철회 2건이 쌓이면 충족으로 바로잡겠습니다.
- B. AI 인프라 금융 프로젝트의 불가항력(force majeure) 통보 또는 지급 유예: 미충족. 오늘 확인한 검색 범위 안에서는 해당 사례가 없었습니다.
- C. 사모대출 운용 3사(APO·KKR·BX) 중 2사 이상이 6개월 최고가 대비 -20% 이하: 충족 (전환). KKR -20.10%, 블랙스톤 -22.32%로 2사가 기준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11/19 종가). 아폴로 -19.01%. [계산]
- D. 엔비디아 또는 삼성·SK의 HBM(고대역폭 메모리, AI 칩에 붙는 고성능 메모리) 실적 전망 하향: 미충족. 세 회사의 HBM 관련 공식 전망 하향은 오늘 확인한 범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FT의 중국향 일부 출하 중단 보도는 전망 하향 공시가 아니므로 이 조건의 충족 근거로 보지 않습니다.)
- E. 전력 인프라 4종(GE버노바·HD현대일렉트릭·효성중공업·LS일렉트릭) 중 2종 이상이 6개월 최고가 대비 -30% 이하: 충족 (유지). GE버노바 -35.63% (11/19 종가), HD현대일렉트릭 -67.63%, 효성중공업 -58.10%, LS일렉트릭 -61.51% (한국 3종 11/20 마감). [계산]
- 종합: 확정된 충족은 C·E 2개('3단계' 해당). A 1개가 미확인이라 확정 단계는 유보합니다 (가능 범위 3~4단계).
- 이 표의 임계값은 미리 정해 둔 편집 기준입니다. 참고 의견이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